

담아오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 더 이상 파괴되기 전에 아마존을 다시 기록하고 싶다



하림 · MBC 촬영감독

■ 마음의 준비는 하고 가셨겠지만 막상 아마존에 도착했을 때의 심정은?

상파울로 공항에서 다음 비행기로 환승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생겨서 처음으로 밖을 나가게 됐는데 뜨거운 공기가 확 밀려오면서 아 덥대! 몸은 움직이고 싶는데 열 폭탄을 맞은 듯 발을 댄 수 없는 압박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밤 비행기를 타고 마나스에 도착해서 아침을 맞이했는데 오~우! 너무 좋은 거예요. '미래소년 코난' 주제가에 나오는 "몽게구름 피어오르고"를 여기서 느꼈어요. 너무나 맑고 드높은 하늘에 광활하게 펼쳐진 끝없는 강을 보면서 자연의 위대함과 경이로움에 감탄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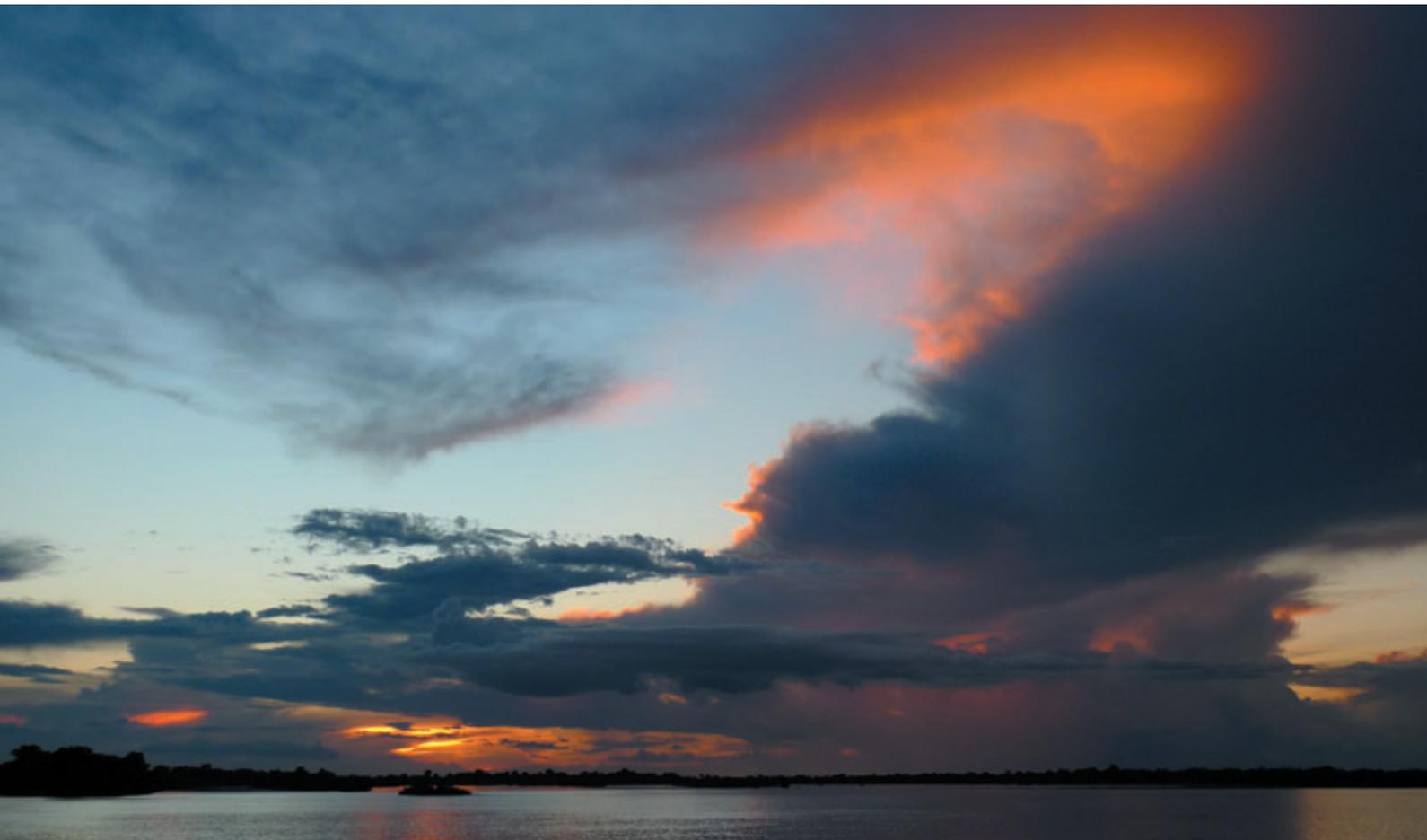
■ 파라나(식인 물고기)가 가득한 강에서 수중 촬영을 할 때의 두려움은?

아마존의 생태를 촬영하면서 무시무시할 것 같은 아나콘다나 악어, 식인 물고기 등이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어요. 이것들은 배가 고파야 사냥을 하고, 누가 자기를 공격해야지만 방어하기 위해 공격을 해요. 도려 사람들이 다가가면 피하기도 해요.

전문가의 말로는 파라나는 물 속 물체의 움직임을 보고 달려든다고 하는데, 실제 촬영에서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움직임을 유도하기 위해 큰 덩어리의 고기를 넣었는데 달려들지 않다가 칼집을 내어 피를 내니까 갑자기 몰려들더라고요. 그래서 피만 뿌려봤더니 아무런 반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가지고 있던 담배개비가 떨어졌는데 순간 우르르 몰려들더라고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저는 이것들이 자신보다 몸집이 크거나 강해보이는 것에는 접근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대상을 살피고 공격하는 것 같더라고요.

■ 아마존(열대우림) 환경에서의 촬영 노하우가 있다면?

우선, 아마존은 습도가 높다보니 습기와 전쟁이죠. 가기 전에도 습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현지에 가서도 숙소와 밖의 온도차이가 생각다보니 시간이 날 때마다 장비를 건조시켰죠. 두 번째로는 날씨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해야 돼요. 아마존은 하루에 한 번 이상 10~20분가량 비가 내려요.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비가 내릴 거라는 걸 귀신같이 알아요. 너무나 맑은 날씨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가이드가 곧 비가 내리니까 장비를 철수하라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 장비를 챙기고 있는데 잠시 후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비가 온다고 하면 아무 말 않고 열심히 장비를 챙겼죠. 현지의 날씨 변화를 잘 파악해서 촬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세 번째는 부족 사람들과 친해져야 돼요. 그 사람들 곁에서 그들의 일상을 촬영해야 되는데 그들과 친해지지 않으면 힘들겠죠. 그런데, 친해지는 방법이 부족마다 천차만 별이에요. 문명이 접촉한 부족은 자신들이 만든 공예품을 구매해 주면 친해지기도 하고, 독한 코담배를 나눠줘야지만 인정해 주는 부족이 있고, 심지어 원숭이 고기를 함께 먹어야지만 인정해 주는 부족이 있어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친해지고 나서야 원활한 촬영이 이뤄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연에 접근하면서 사람냄새가 나면 안 돼요. 촬영을 하면서 '재규어'를 담고 싶었지만 끝내 담지 못했어요. BBC에서도 1년 동안 촬영하면서 단 한 번 영상에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먹이가 있어서 평상시의 냄새와 다르다면 다가오지 않고 더욱 멀리 숨어들어가니까요. 자연에 동화되지 않으면 담아내지 못하는 영상들이 많게 되죠.

■ 촬영 중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들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면인데요. 브라질에 아주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데, 텅 빈 내부를 촬영하고 싶어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고 촬영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약속 당일 오페라 하우스를 찾았는데 아이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우리는 텅 빈 내부를 찍기를 원하는데 아이들이 있으면 힘들다고 했더니 아이들이 있으면 왜 텅 빈 내부를 왜 못 찍느냐고 반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촬영을 다시 하러 간 해프닝이 있었죠.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체적으로 거기 사람들이 시간이나 약속 등에 관해서 여유로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 정말 집에 가고 싶다고 느낄 정도로 힘들었던 순간은?

배가 전복되던 날. 기사도 낚았는데 저희가 탄 보트가 저녁에 촬영을 마치고 회선하다가 마주오던 배와 부딪혀 우리 쪽 보트가 전복됐어요. 카메라 장비부터 촬영한 테이프는 물론이고, 저는 배 안에 10분가량 갇혔다가 나왔거든요. 숙소로 돌아와 앉아 있는데 그 순간 정말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 아침에 일어나 맑은 하늘과 넓은 강을 보니까 다시 카메라를 잡게 되더라고요.



무한한 기다림의 시간이 흐르고,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 입 안에서 쓴 맛이 올라올 때 자연은 숨겨 놓았던 속살을 보여준다. 오랜 기다림을 지나 담고자 하는 형체가 나의 눈으로 빨려 들어오는 순간 온 몸이 전율하며 불타오른다.



그리고, 자연은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살며시. 보고 싶은 것을 쉽게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내가 담고 싶다고 담아지는 게 아니고 무한한 기다림 속에서 자연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담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를 아무런 기약 없이 기다린다는 것이 아마 자연의 신비를 카메라의 담는 모든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해요.

■ 힘든 촬영 속에서도 행복감을 준 시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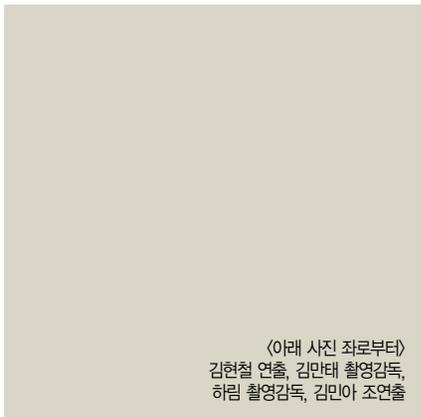
무한한 기다림의 시간이 흐르고,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 입 안에서 쓴 맛이 올라올 때 자연은 숨겨 놓았던 속살을 보여주더라고요. 오랜 기다림을 지나 담고자 하는 형체가 나의 눈으로 빨리 들어오는 순간에 온 몸이 전율하며 불타오르죠. 그 순간에는 그 대상과 저만이 세상에 있는 듯 몰입하고, 호흡하며, 행복을 시간을 만끽하죠.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면서 행복감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죠.

■ 아마존의 자연파괴, 인간과 동식물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을 담으며 든 생각은?

생각보다 저희가 원하는 모습이 많았어요. 문명과 접촉,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 등 아마존의 광활한 자연보다도 파괴되고 훼손되는 일상들이 더 쉽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람들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그들의 행복을 어떻게 결정지어 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기준(좋은 집, 옷, 자동차, 풍부한 음식 등)으로 저 사람들의 행복을 규정지을 수 있을까. 아마존 인디오 부족이 문명과 접촉하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 불행한 것인지 누가 판단할 것인가. 우리들은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그 다름을 다양성으로 인정하면서 그들의 행복기준을 규정지어야 하는가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보니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을 그대로 담아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시청자들도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겠지만 판단은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 아마존은 다시 갈만한 곳인가?

다시 가고 싶어요. 담아오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고, 빠르게 진행되는 아마존의 파괴를 보고 오니, 다시 한 번 가서 보지 못하고 담지 못했던 수많은 모습을 담아오고 싶어요. 촬영을 마치고 아마존을 떠나오면서 아쉬움이 밀려오더라고요. 담아보지 않은 곳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보여주지 않은 아마존의 또 다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오더라고요.



〈아래 사진 좌로부터〉
김현철 연출, 김민태 촬영감독,
하림 촬영감독, 김민아 조연출

